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운영 방안

2018.12.18(화) 9:30~17:30

진영란

chinyr@chungwoon.ac.kr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목차

- 커뮤니티케어 최근 추진상황과 시선들
- 우리나라에 커뮤니티케어는 필요한가
- 복지부의 사업방향은
- 간호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햇볕을 쬐고 싶다. 농사일에 항상 거무튀튀하고 거칠었던 할머니의 피부는 요양원에 들어온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뵈어졌다. 평생 가져 본 적 없는 하얀 피부다. 요양원이 상가건물 2층에 있어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바깥 공기와 따사로운 햇볕을 직접 쬐기가 어렵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बे지밀과 빵 한 조각을 손에 쥐여 드렸다. 눈치가 보인다. 할머니가 일을 저질러 10분 전에 침대 시트를 다 바꿨다며 원장이 연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다. 손목을 보니 붉은 자국이 남아있다. 침대에 묶여 계셨나 보다.

십 수명의 할머니가 거실 긴 의자에 앉아있다. 나란히 앉아있지만, 텔레비전만 응시할 뿐 서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는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점점 희로애락이 사라진다. 갇혀있다시피 돌봐주는 요양시설이지만, 보험혜택을 최대한 받아도 매달 70만원씩 들어간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뇌세포가 다 회색이 될 때까지, 몸의 세포가 다 멎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예견된 비극으로 향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을까?"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서평 중에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경쟁률 10대 1 넘을듯

내년 지자체 8곳 선정...100여곳 넘게 관심 표명

박능후 복지부 장관 “커뮤니티 케어 확산은 시간 문제”

“보건의료·복지 체계 공공성 높여야” 지적도



“내년부터 시·군·구 8곳에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시작할 텐데, 100여곳이 사업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관심 보이고 있다. 지역마다 다양한 성공 모델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선진국들도 최소 20~30년이 걸렸다.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에서 노인 돌봄은 요양원 등 시설에 맡기거나, 가족 중 여성한테 의존하거나 둘 중 하나다. 탈시설화와 탈가족화를 동시에 추진해서 돌봄을 사회화해야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여성의 인권 보장과 보건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전략이다.”(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복지부, 내년 보건의료 예산안 '11조 5863억원' 확정

-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지역 기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80억원이 배정했으며, 의사와 학자·교육전문간호사 신설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해 배정했다.
- 태움문화 개선을 목표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에 내년 76억 7000만원을 더해,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으로 정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채용하며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이상 확보하며 ▲병원 내 교육관리팀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선 1.



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신문

자본시장

산업

부동산

아웃소싱

정치사회

오피니언

아하!그렇군요

증권

기업심층해부 | 여의도25시 | 탐사보도 | 아하!그렇군요 | 생활경제 해피포인트

🖨️ | ✉️ | 📄 글자크기 + -

[여의도25시]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한국 굴화위지 우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12.12 16:53:07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의료개혁 측면에서 다방면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의료영역의 기본 체질을 바꾸는 방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지요.

커뮤니티케어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제도입니다.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면서도 병상에 누워 치료객체가 되는 대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시선2

日 지역포괄케어 주장한 의사가 한국에 하는 조언

니키류 교수, 중소병원 역할·의사단체 설득 중요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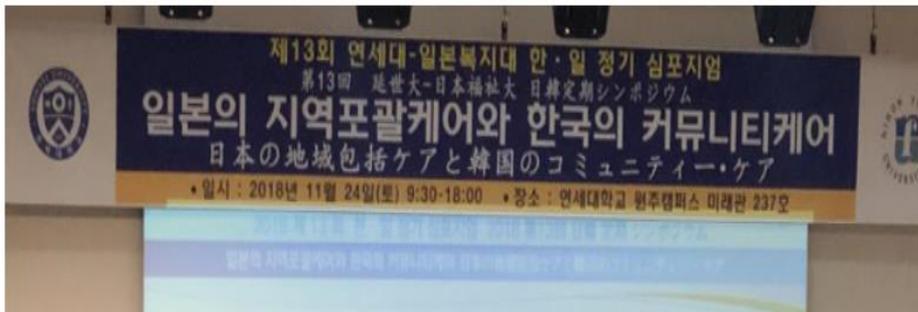
이혜경 기자 2018-11-26 06:25:08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제13회 연세대-일본복지대 한·일 정기 심포지엄

"한국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구상하면서 의료나 복지를 강제로 바꾸려 하면 안된다. 민간병원이 중심인 나라에서 정부가 강제로 행동하면, 모든 이야기가 틀어진다."

일본 의사이자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노인의료복지복합체 제도를 제정, 지금의 일본 지역포괄케어를 만든 니키류 일본복지대학 전 총장이 커뮤니티케어를 만들고 있는 한국에 이 같이 조언했다.



맞 올린 '커뮤니티 케어'...의사 참여에 성패

안치석 원장(충북 청주시안치석봄여성의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3 15:34 | 댓글 0

다양한 이견 조율하고, 자원 배분할 컨트롤타워 불분명
수가현실화·만성질환·전달체계·원격의료·주치의제 등 산적



안치석 원장(충북 청주시안치석봄여성의원)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맞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을 바꾸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소위 커뮤니티 케어 추진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 올해 고령사회 기준인 65세 인구가 14%를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커뮤니티 케어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이나 동네에서 살아가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필요한가?

한국여성 기대수명 세계 첫 90살 돌파. 남녀 모두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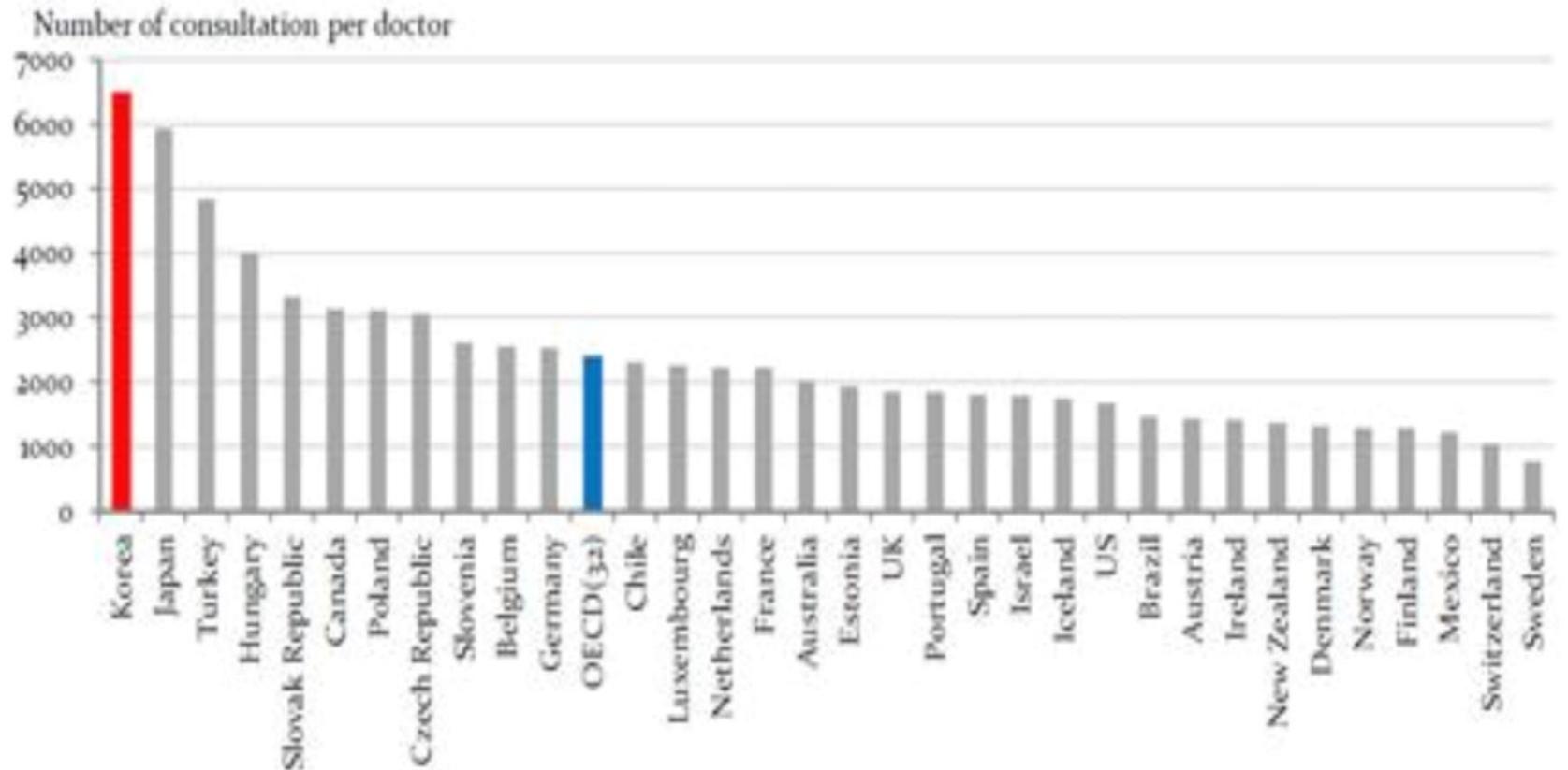
"The biggest result is that ... at least one group is going to break the 90-year barrier," said Majid Ezzati, professor of global environmental health at Imperial College London, referring to the predictions among South Korean women. Ezzati led the study and highlighted that many experts had believed the average would never exceed 90.

“한국인들이 교육과 영양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하게 누리고,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비만률이 세계 최저 수준”(영국 BBC 방송 인터뷰 중)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83684.html#csidxf8803a2a6e006afa1b23d1e6ce0a09d

의사진료건수 OECD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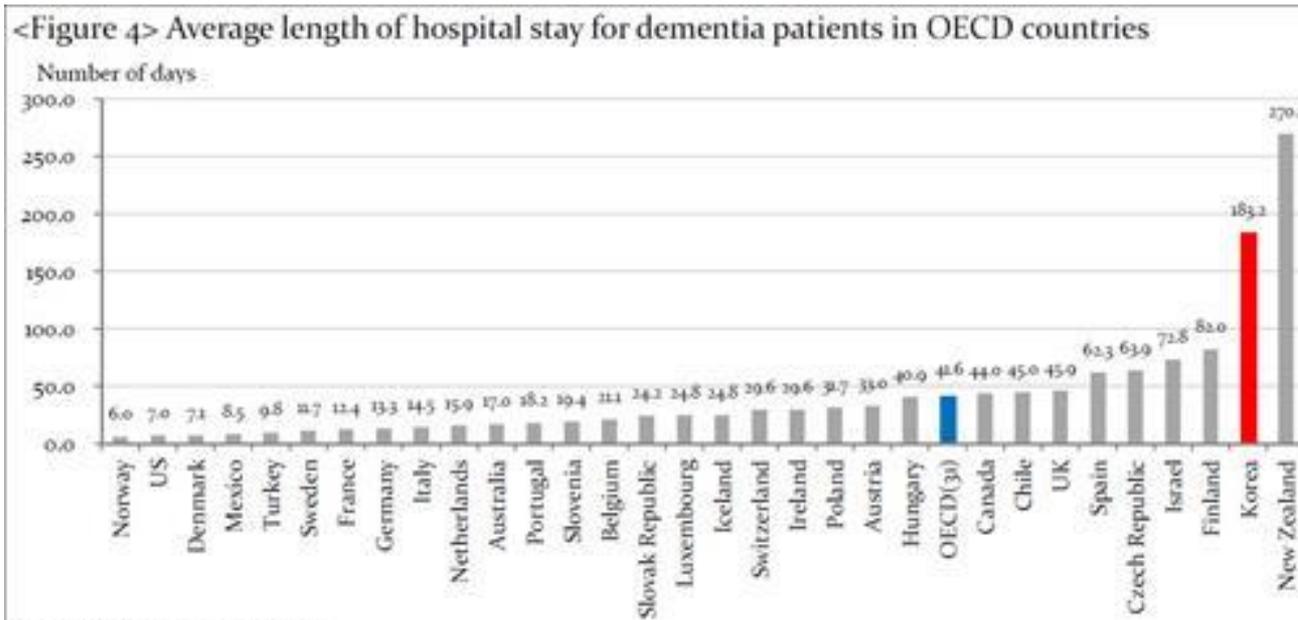
<Figure 6> Number of consultations per doctor in OECD countries



Source: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입원일수도 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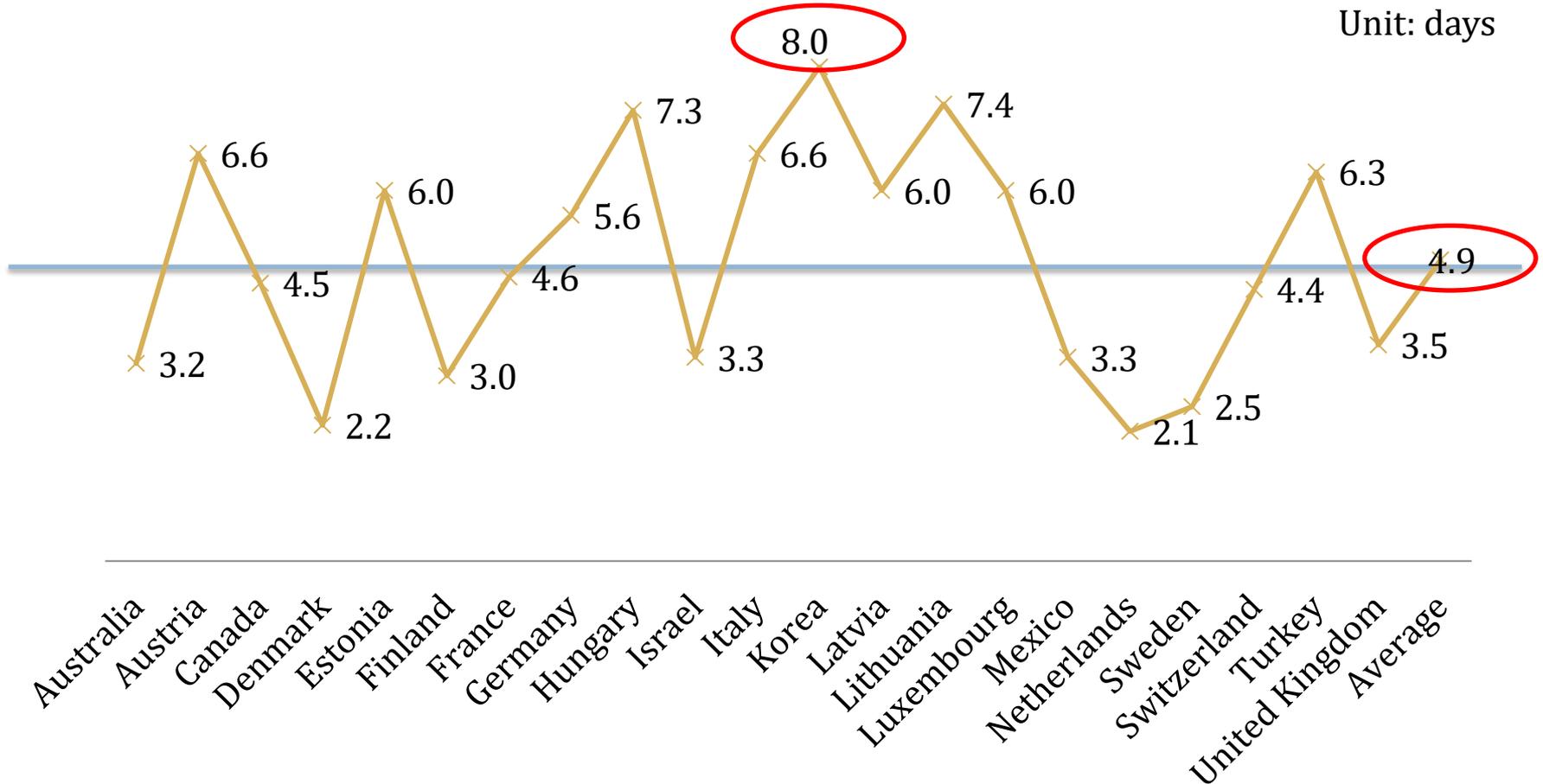
-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신체기능저하군)
 -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명), **지속증가 중**('09년 3.7%→'16년 8.3%)
- 연평균 입원일수
 - 한국 16.5일 **2배 이상** > OECD 평균 8.3일
- 치매환자의 요양병원 연평균 입원
 - 한국 183.2일, **4배 이상** > OECD 평균 41.6일
- 치매입원 일수 OECD 2위



Source: OECD Health Data 2015

질환별 입원율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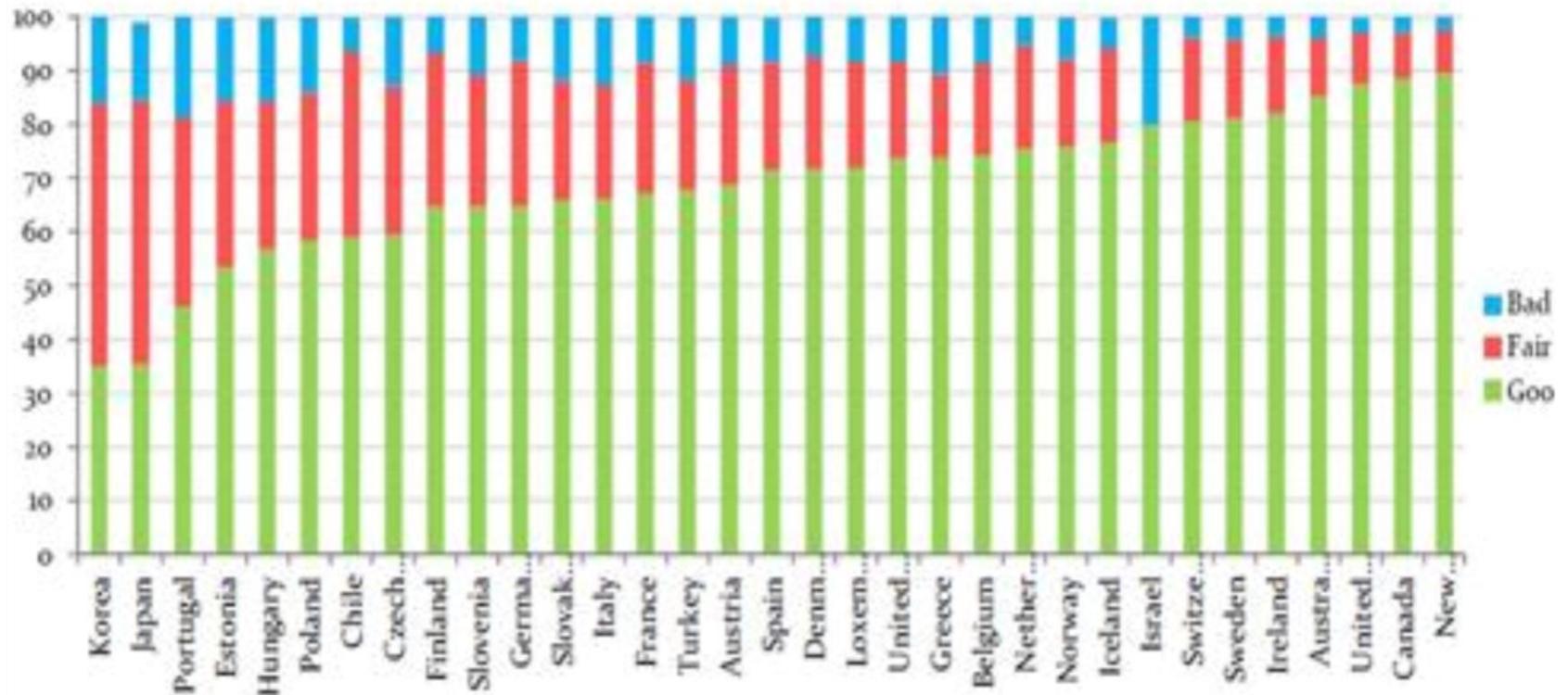
- Transient cerebral ischaemic attacks and related syndromes



자료: <http://www.oecd.org/> health care util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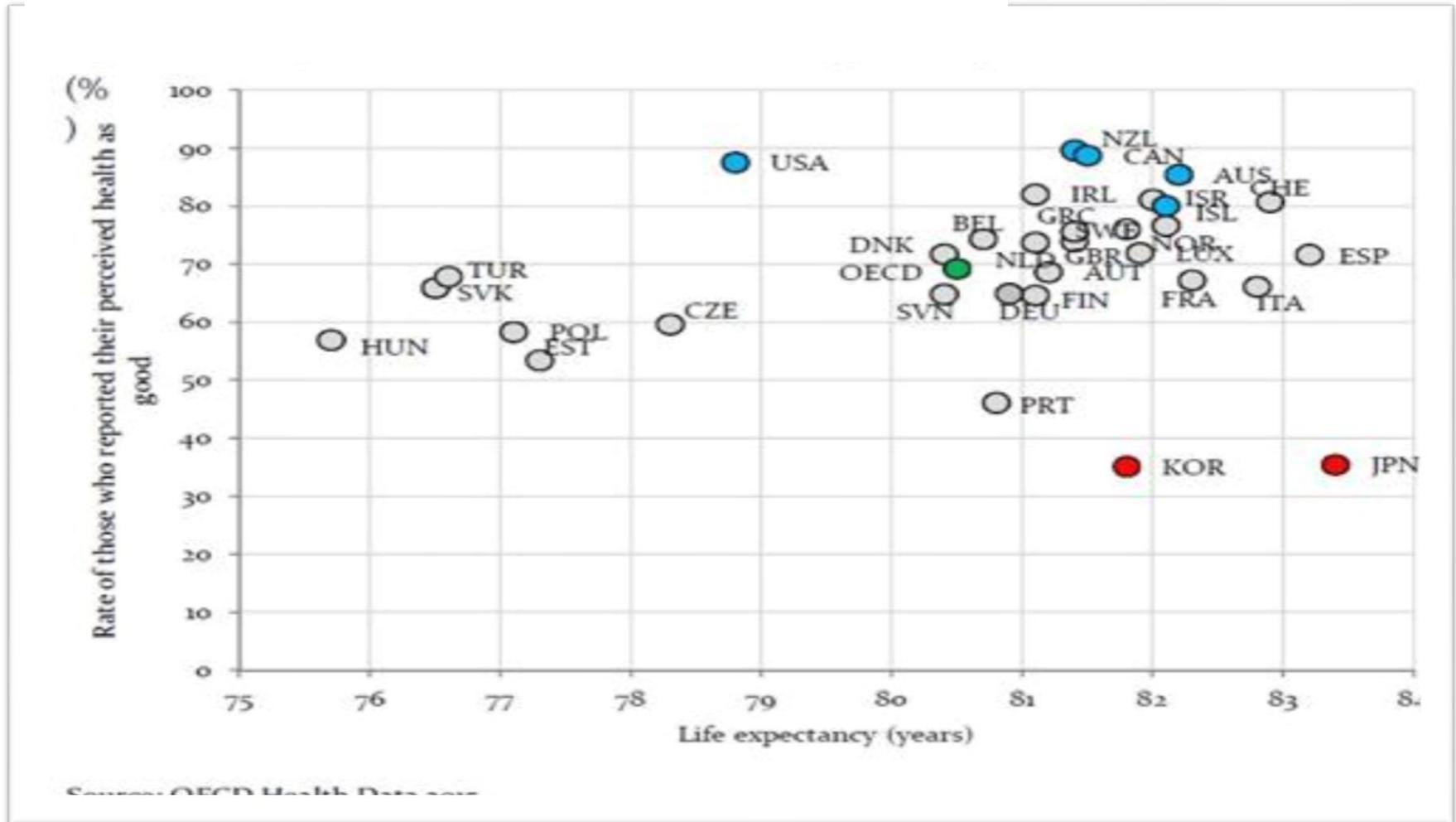
우리나라 '건강나쁘다' 생각 OECD 최고

Figure 3 Self-reported health in OECD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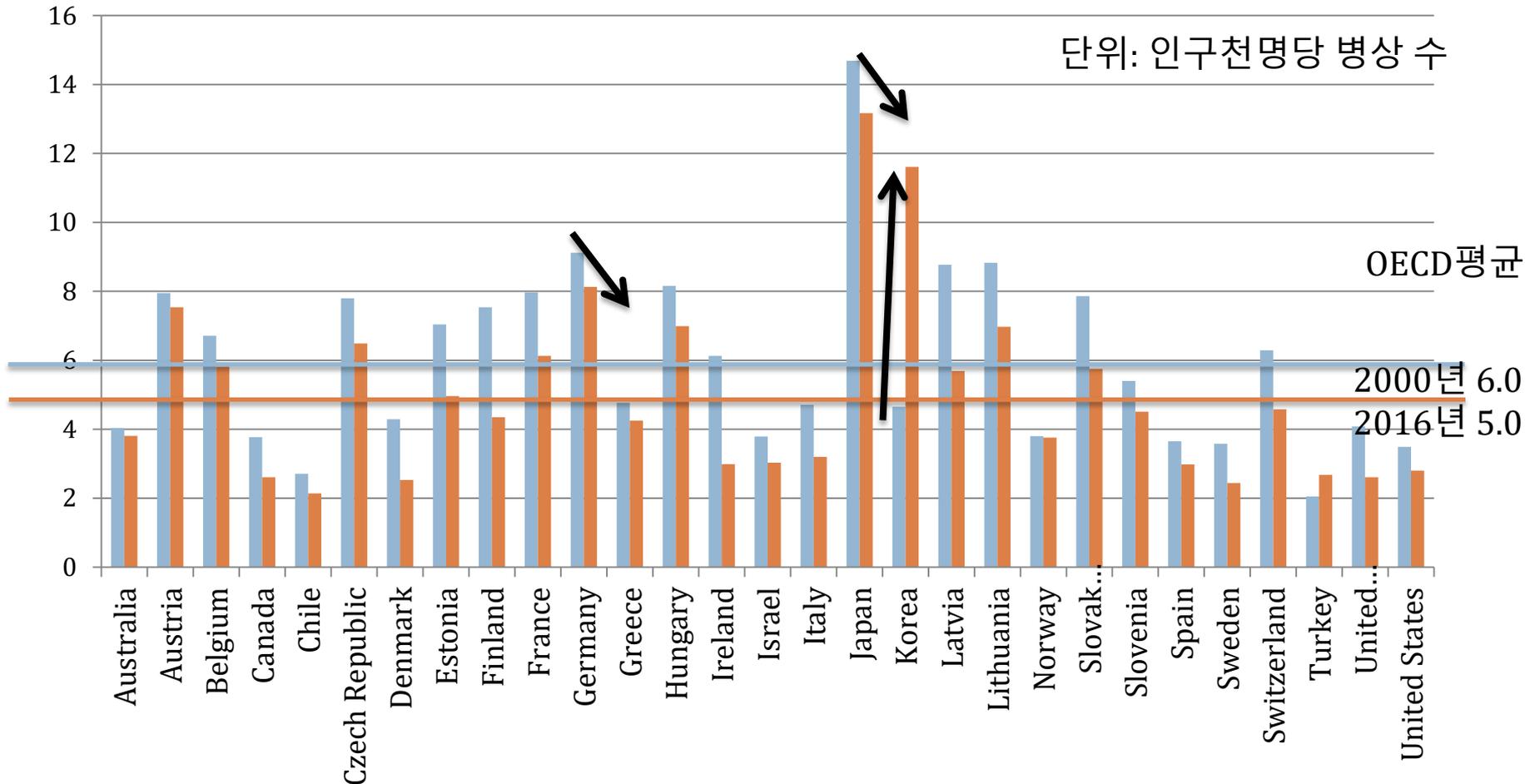
source: OECD Health Data 2015

오래 살지만 건강수준은.....



총 병상수 급증, 2016년 세계 2위

- OECD 평균 병상수 감소(2000년 6.0 → 2016년 5.0)



자료: <http://www.oecd.org/> health care utili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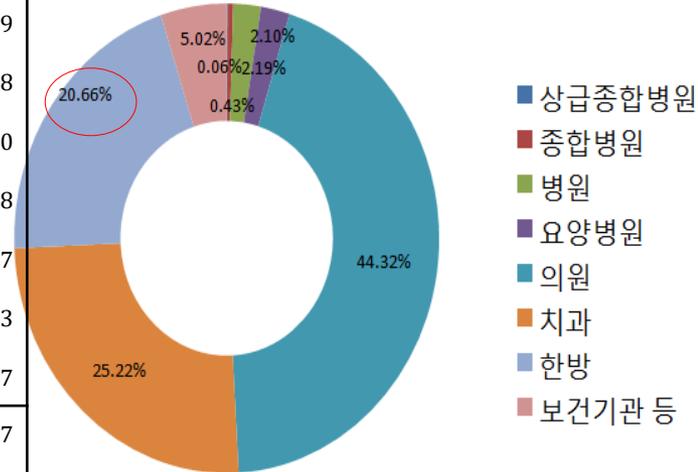
요양병원 급증 중

• 요양병원은 계속 급증 중

- 2017년 요양기관 수 총 9만 1545개소(전년대비 1.8% 증가)
- 종별 연평균 증가율: **요양병원(8.4%)** > 치과(2.4%) > 한방(2.4%) > 의원(1.7%) 순

(단위: 개소, %)

구분	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방	보건기관 등	약국	
2010년	81,681	44	274	1,315	867	27,469	14,872	12,229	3,515	21,096	
2011년	82,948	44	275	1,375	988	27,837	15,257	12,585	3,508	21,079	
2012년	83,811	44	278	1,421	1,103	28,033	15,566	12,906	3,502	20,958	
2013년	84,971	43	281	1,451	1,232	28,328	15,930	13,312	3,504	20,890	
2014년	86,629	43	287	1,474	1,337	28,883	16,377	13,654	3,516	21,058	
2015년	88,163	43	294	1,496	1,372	29,488	16,822	13,873	3,508	21,267	
2016년	89,919	43	298	1,514	1,428	30,292	17,246	14,150	3,505	21,443	
2017년	91,545	43	301	1,466	1,529	30,938	17,607	14,423	3,501	21,737	
증감률	전년대비	1.81	0.00	1.01	-3.17	7.07	2.13	2.09	1.93	-0.11	1.37
	연평균	1.64	-0.33	1.35	1.56	8.44	1.71	2.44	2.39	-0.06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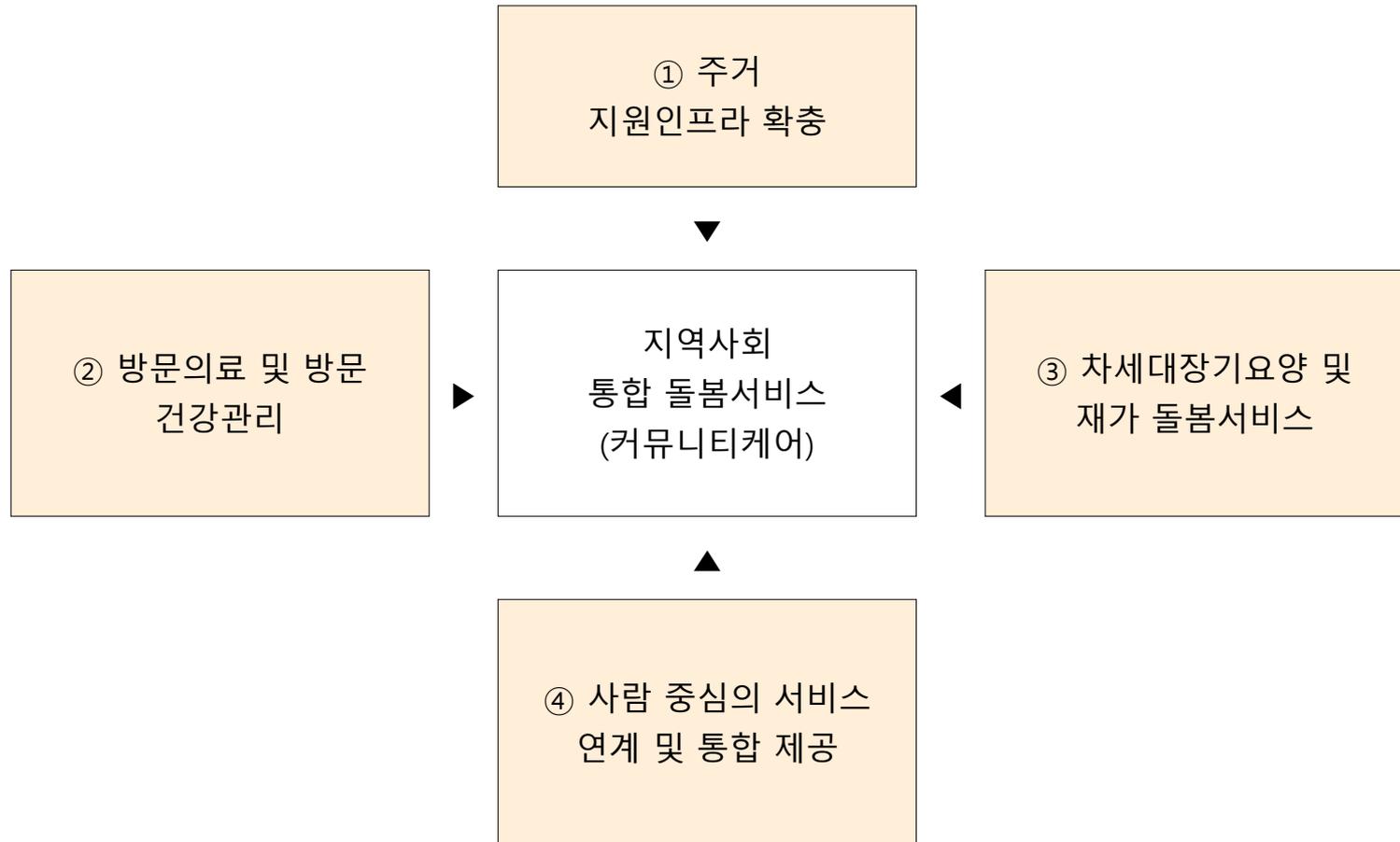
자료: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보건복지부의 사업방향은?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

1. 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2. 노인 독립생활 시 낙상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 실시
3.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추진으로 마을 소멸에 대응
4.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본격 제공
5. 시군구 '주민건강센터' 설치,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충
6. 2,000개 이상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돌봄서비스 연계
7.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노인의 약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 등)
8. '19.6월부터 2년 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 실시
9. 초고령사회('26) 진입 전인 '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의 4대 핵심 요소



자료: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발표. 2018.11.20

1. 주거인프라 지원 확충

- 노인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
- 영구임대주택도 케어안심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
- 커뮤니티선도사업 및 도시 재생뉴딜사업 추진
- 주택개조(집수리)사업: 안전바닥재, 안전손잡이 등
 - 노인가구가 가장 필요한 주택개조항목('17 주거실태조사) : 미끄럼 방지 등 안전바닥재(37.6%), 응급 비상벨(31.1%), 욕실 안전손잡이(29.3%)

2.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 대폭 확충**
 -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충**
 -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 2019년부터 시범사업**
 -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확대 등

2.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
 -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또는 전담인력 배치(의료법 개정 추진)
 -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 지원

3.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확대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
 - '17년 노인의 8.0%(58만명) ⇨ '22년 9.6%(86만명) ⇨ '25년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
 -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의 장기요양 수급률 : 독일 11.3%, 일본 12.8%
- 장기요양보험급여 확대: 가칭 병원 모심택시, 집 문턱 제거 등
- 보조기기 품목 확대 지원
- 통합재가급여 제공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자 확대 80%
- 모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설치
- 선도사업을 통해 식사배달, 법률지원, 안부확인 등 **신규 서비스 개발**
- **재가의료급여 신설**: 장기입원후 퇴원한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 영양, 이동지원 등 제공

4.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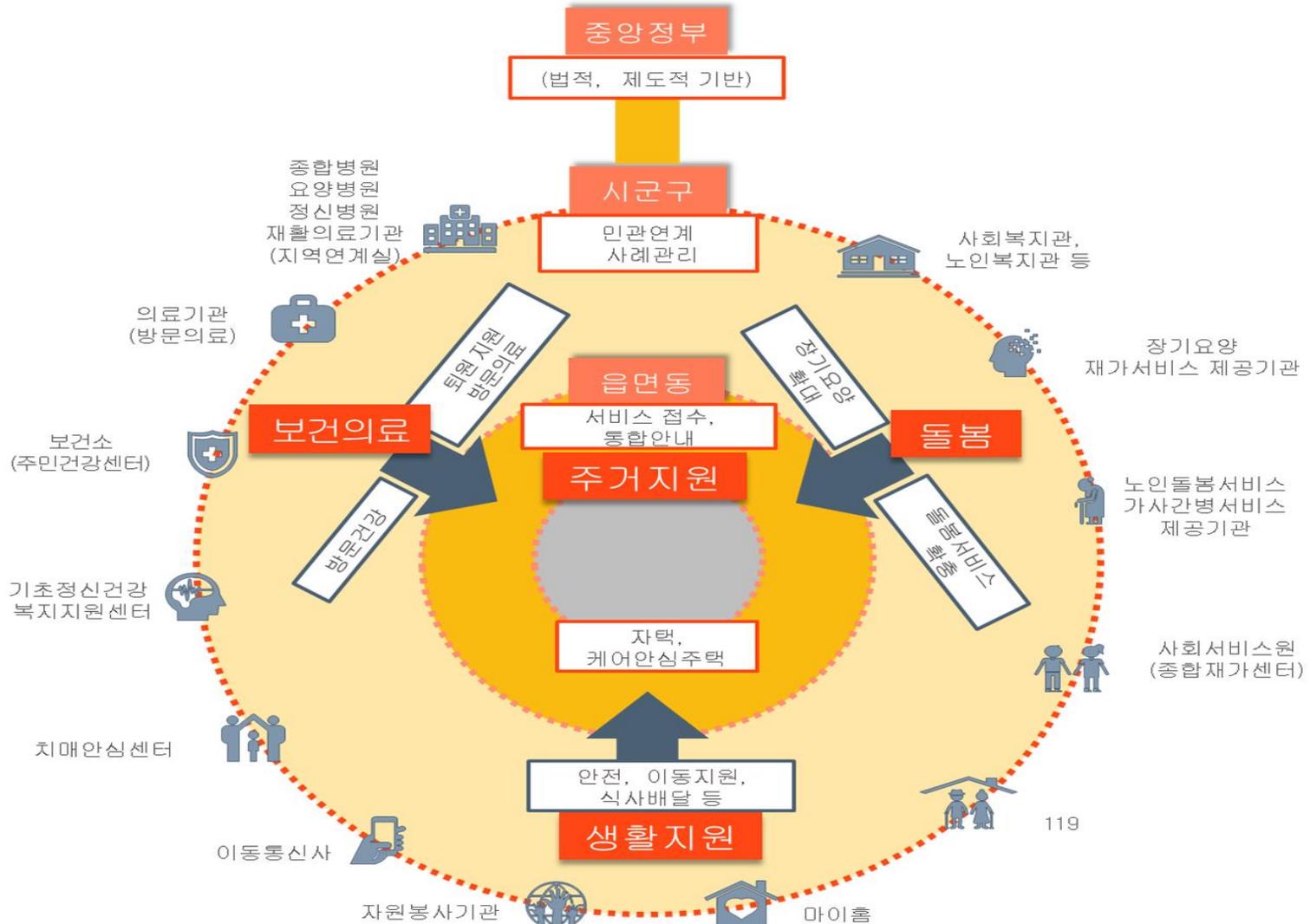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 고도화
 -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 운영**
 - **‘지역케어회의’ 운영**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22년까지 15.5천명)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확충**
 -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다직종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갈 계획**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자료: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발표. 2018.11.20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발표. 2018.11.20

주요 인프라 및 서비스 목표

분야	현재	미래(2022년, 2025년)
케어안심주택	일부 지역 소수	2022년 최대 4만호 목표
집수리사업	부분적 실시	2025년 최대 27만 4,000세대 목표
주민건강센터	66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8)	2022년 250개 시군구 목표 2025년 소생활권 목표(재원대책과 연동)
어르신 지역 돌봄 시범마을	-	2025년 약 1,000개소
종합재가센터	-	2022년 시군구 별 1개 (2022년 사회서비스원 직영 135개 포함)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110만 가구('18)	2022년까지 271만 2025년까지 346만 가구

분야
병원 지역연계실 (사회복지팀)
재활의료기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신규 재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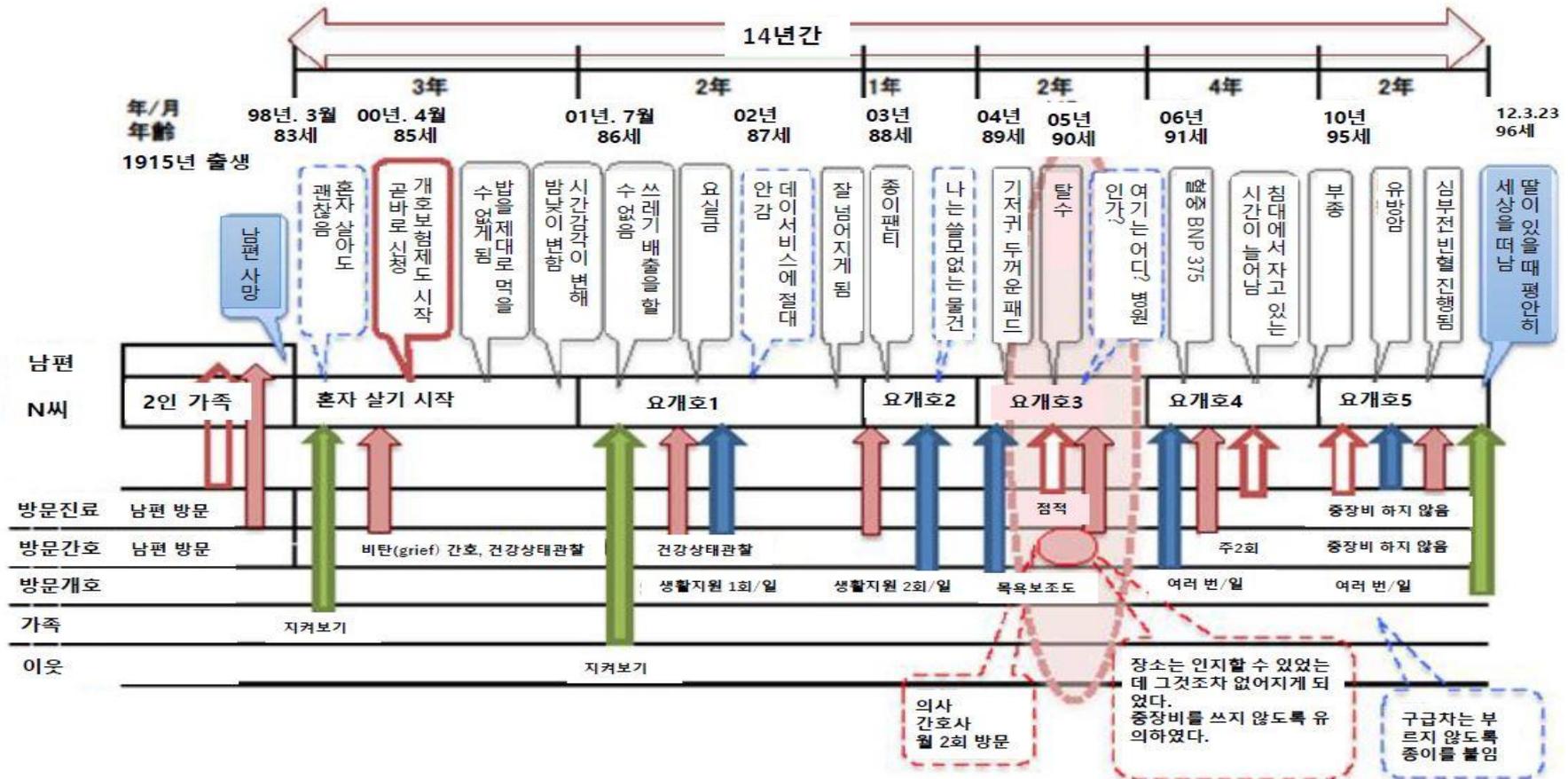
현재
일부 병원에서 '사회사업팀' 운영
15개소('18 시범사업)
노인 중 8.0%(59만명)
재가서비스 이용률 69%('17)
-

미래(2022년, 2025년)
2022년까지 약 2,000개 병원
2025년 약 150개
2022년 9.6% (86만명) 2025년 11%수준 이상 목표 (120만명 이상 목표)
2022년까지 이용률 75% 2025년까지 이용률 80%
식사 배달 이동 지원 법률 지원(공공 후견 등) 안전·안부 확인 주택 개보수 야간 순회 및 대응

간호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본의 생의 말기 케어

과도한 의료 장비를 하지 않고 생의 말기 지원



향후 간호계의 과제

1.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등)의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제공
 - 지역사회에서 건강 이상자 발굴 및 일차 평가
 - 적정 서비스 연계 및 이용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모델 구체화 및 효과 평가
- 기존 인력의 정규직화 / 처우 개선
- 방문간호인력 확보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 개정되었으나 실제 확보는 지자체의 역할....

■ 방문간호사의 급여 수준

시도	2016년 12월 평균 급여(단위 : 천원)
전국 평균	2,027
서울	1,916
부산	2,060
대구	1,818
인천	1,832
광주	2,435
대전	1,907
울산	2,287
세종	2,001
경기	2,144
강원	2,048
충북	2,450
충남	2,124
전북	1,906
전남	2,019
경북	1,848
경남	1,850
제주	1,810

- 2017년 9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 **339만 7천원** (고용노동부, 2018)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2017년 상반기 평균 임금 **2,937천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인력 임금가이드라인, 2018)
- 임시일용직 평균 월급 155만원 보다 조금 높음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착수된 후 보건복지부 사업메뉴얼에 방문간호사의 호봉체계 변화없음, 동일 기간 공무원 급여 최저호봉 기준 12% 인상됨

■ 방문간호사의 언어적 폭력 및 신체위협 경험

영역	특성	N	%
언어적 폭력	욕	308	32.9
	반말	593	63.4
	고성	349	37.3
	협박	210	22.4
신체적 폭력	때리는 자세를 취했다.	86	9.2
	험상긋은 표정을 지었다.	373	39.9
	물건을 던지려는 자세를 취했다.	56	6.0
	화를 내며 돌아다녔다.	210	22.4
	물건이나 집기를 발로 찼다.	57	6.1
성희롱	음담패설을 했다.	288	30.8
	외모에 대해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했다.	134	14.3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했다.	28	3.0
	가슴,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	68	7.3
	안마나 애무를 강요했다.	9	1.0

향후 간호계의 과제

2. 의료기관 가정간호 활성화

- 요양병원 급증, 병상공급 과잉으로 운영 부진
- 가정전문간호사 6,484명(2017년)중 활동 간호사는 6.7%, 해마다 200~300여명 배출
- 입원과 동시에 퇴원계획과 연계
-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기준 명확화
- 가정형 호스피스와의 연계 및 활성화 필요

향후 간호계의 과제

3.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활성화

- 월 재가급여한도액으로 간호서비스 외면
- 임종 직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방문요양센터에서 방문간호 의뢰
- 서비스 제공체계 구체화 및 효과 평가 누적



- 통합재가급여 도입 및 실효화: 간호사의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제공(주 1회 이상)
- 인력 별 서비스 내용 차등 명확화: 간호사 vs 간호조무사

■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운영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단위: 인, 천원)

	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노인요 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 정
급여이용 수급자	578,867	317,195	68,590	11,485	4,081	5,421	246,960	176,041	24,434
(%)	100.0	54.8	11.8	2.0	12.8	0.9	42.7	30.4	4.2
급여제공 기관	19,361	10,395	4,859	429	2,831	233	1,510	3,438	2,317
(%)	100.0	53.7	25.1	2.2	14.6	1.2	7.8	17.8	12.0
급여제공 일수	122,924,601	56,687,474	1,653,251	322,660	11,523,296	354,663	-	46,675,706	5,707,551
(%)	100.0	46.1	1.3	0.3	9.4	0.3	-	38.0	4.6
급여비용	5,759,993,829	2,110,510,344	99,850,591	14,799,535	571,176,212	15,219,580	137,001,262	2,521,273,497	290,162,807
(%)	100.0	36.6	1.7	0.3	9.9	0.3	2.4	43.8	5.0

자료: 2017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2018

향후 노인건강증진사업 관련 제언

4. (가칭) 독립형 지역사회간호센터 설립 제도화

- 의사 및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체계에서 미충족 서비스 수요 대응
 - 의료적 요구가 낮은 사회적 입원자(신체기능저하군)
 -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명)
 - 지속 증가 중('09년 3.7%→'16년 8.3%)
 - 재가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 입소·병원 입원자
 - 암 환자
 - 중증 장애인
 - 입원형 호스피스 필요자 등
 -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가정간호기관을 의료기관의 하나로 추가 등

■ 사례 1) 일본 미모자의 집(치매공동생활가정)



요츠야 사카마치에 완성, 2015.9.1 개업. 간호소규모다기능형 재택개호
사카마치 미모자의 집 (미호 씨와 모토 씨 자매가 살던 집)

■ 사례2. 일본 Meggie's caring center



도마도우 암환자와 가족·친구가 자신의 힘을 회복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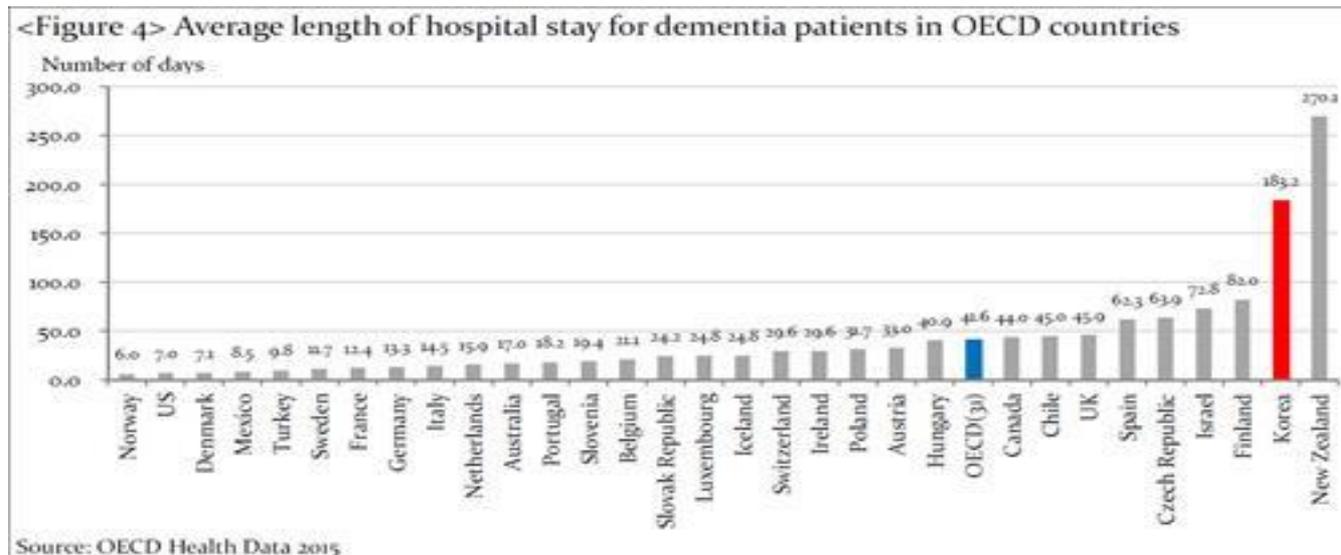
maggie's cancer caring center 東京都

- 암센터병원 근처에 편히 쉬면서 진심으로 가까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 병원과는 별도의 건물로 밝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곳과는 다르다는 첫인상
- 주방을 중심으로 중앙에 큰테이블, 안뜰과 밖의 정원이 보이는 자연광이 밝은 내부
- 간호사(언니가 암으로 사망) 주축, 모두 자선 사업으로 운영, 전담운영진 있음
- 「대신」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것 ⇒ 새로운 상담지원
- 이용 환자나 가족은 치료비가 늘어나고, 일을 줄이면서 수입 감소 ⇒ 무료이용 필요
 - ✓ 우선 도쿄도 요스구에서 시작
 - ✓ 뜻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지혜와 힘, 자선(기부)로 2015~2020 파일럿 프로젝트

향후 간호계의 과제

5. 요양병원 병상수 조정 및 기능 전환: 수가 개편 등

-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신체기능저하군)
 -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명), **지속증가 중**(`09년 3.7%→`16년 8.3%)
- 연평균 입원일수 한국 16.5일 **2배 이상** > OECD 평균 8.3일
- 치매환자의 요양병원 연평균 입원, 치매입원 일수 OECD 2위
한국 183.2일, **4배 이상** > OECD 평균 41.6일



■ 세계는 의료비 절감 중

- 일본은 강도높은 병상 감소 정책 추진 중
 - 2020까지 지자체 별로 적정 필요병상수준(감축 목표량)까지 감축했는지 평가 중

자료: 일본 경제·재정 재생계획 개혁 공정표
- 미국 요양병원
 -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
- 대만 요양병원
 -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
 -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 유도

향후 노인건강증진사업 관련 제언

6. 커뮤니티케어 간호사 교육 및 훈련

- 현행 유휴 간호사 재훈련 프로그램 운영
 - (가칭)지역사회간호센터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
 - 다양한 지역사회 센터
- 학부 교육과정의 개편: 급성기 병원→커뮤니티케어 중심
- 전문간호사 활용

■ 영국 Education and Career Framework (Health Education England, 2018 현재)



Career and education illustration



향후 노인건강증진사업 관련 제언

7. (가칭) 지역사회간호센터 시범사업 운영

- 사업 운영체계 개발:인력, 운영 자원, 필요 역량, 수가 등
- 사업 효과 및 효율성 평가
- 기존 전문간호사 활용방안 모색

- 벤치마킹: 일본의 미모자의 집, Meggie's caring center
- 시범사업 운영: 지역 간호사회 및 학회 등 협력체

우리는 지금 비용효율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 의료기관 병상수, 진료건수, 입원일수 모두 세계 최고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병상 수 급증 중!

BUT

- 건강수준은 높지 않고,
- 기대수명- 평균수명의 차이 대략 10년
- 노인인구 급증으로 의료비는 더욱 증가될 예상

- 더 늦기 전에!!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 간호사는 역할과 권리를 '지역주민 centered' 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